

#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4호 [무게 제25623호] 주제 106(201)년 4월 24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에게 보내신 축하전문 전달모임 진행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일당겨 완수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의 전진총돌격전에 선약한 일떠선 영웅소대의 전체 전진총돌격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자랑찬 금골의 영웅광부들답게 불꽃튀는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하여 광물생산고지를 일당겨 점령함으로써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로동계급의 역전 기상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101.5%로 완수한 영웅소대원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보내주신 축하전문에는 영웅소대의 전진총돌격원들과 검덕의 로동계급이 양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으며 만리마시대의 도약을 향한 전진총돌격

원들의 앞장에서 집결장이 나아감으로써 제국주의반동들이 발악할수록 자력자강의 배심근들의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영웅적 집결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과 불가항력적 위력을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최상의 믿음과 기대가 어려웠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이시며 조선인민군 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일당겨 완수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전문 전달모임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김정일 함경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비전화 단 선지구광업총국 총국장,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일군들, 영웅소대 대원들, 가족소대원들, 방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전문을 읽기남동지가 장중히 전달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대진군 전투지휘를 맡고 있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올달 때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을 높이 평가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인정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만세!》의 함성을 목청껏 터쳐올려 들었다.

이어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 대장 고경찬, 연합기업소 지체인 김영중, 금골광산 초급당위원장 피동호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전문의 구절구절마다에 넘치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만리마시대의 새 방향을 향한 전진총돌격전에 떨쳐나선 기업소들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전백배의 힘과 용기를注入해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오늘날의 이 영광을 실감없이 간직하고 광물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우리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만드는 길에서 전초병이 될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층처럼 간직하고 당중앙과 실장의 명령을 같이하며 전투장마다에서 중사의 통솔을 새겨쳐 올린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횡포무도한 초강경위협과 야만적인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는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영웅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영웅소대원들과 가족소대원들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불연히 펼쳐입어나 중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의 불바람을 새겨쳐 일으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역할을 가지는 뜻깊은 올해의 년간인민경제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전투장마다에서 사상의 포문을 열고 따라매우기, 따라매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에 새겨쳐 마오르도록 힘으로써 당난민계획과 년간계획을 일당겨 수행하는 강, 지장, 소대, 작업단의 대열을 끊임없이 늘려나감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실비, 자력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다량광광, 다량광

제급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축하전문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결사분발하여 떨쳐나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총진군에

서 만리마시수, 선구자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고경찬영웅소대의 전과에 화답하여 전민총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리자

### 크나큰 믿음 새겨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단천지구 광업총국아래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일당겨 완수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전문에 담긴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광산, 공장, 기업소들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애국충정으로 심장의 뿔을 퍼를 펴며 끓이며 일떠마디에서 중산돌격을 활차신바람 지쳐올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지자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풀고나 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적대세력들의 횡포무도한 초강경위협과 야만적인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할수록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당이 제시한 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기세를 힘있게 떨치고있다. 지난 1.4분기간 총공격적인 연합투쟁체제와 전기아연,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사르프, 정소마그네사, 연육 등 중요시표들에 대한 생산목표를 편이여 돌파

한 이들은 뜻깊은 4월에도 지역자강의 통솔을 더욱 우렁차게 울리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 있다.

산하단위의 각 전진총돌격원들이 전진총돌격의 깃, 빨간 일군들은 생산자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자강에 살피고자 세 힘을 끌어내고 막아서는 난관을 자제의 힘으로 뚫고나갈 때 절망 못할 요새란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정치사상공세를 드세게 펴고있다.

총국아래 모든 생산단위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세가 날로 더욱 고조되어 모든 일터에서 만리마속도로 로동계급이 새겨쳐 라면지고있다.

나라의 대구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서 소대원, 작업반원들이 앞장서서, 따라매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더욱 활발히 벌어져 만리마속도로 전진총돌격이 나날이 계속되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층처럼 간직하고 당중앙과 실장의 명령을 같이하며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고경찬영웅소대의 위훈이 4월초에 상인년계획을 완수한 바에서 전진총돌격원들은 만리마속도로 전진총돌격에 힘있게 뛰어들고 있다.

중앙광산 로동계급은 재계의

대혁명, 현대화를 계속 쫓아갈 때 내일 더 다량광광, 다량광으로 광석생산을 밀고나가는 길에서도 소성로마다 만부하를 겪고 마그네사르프생산량을 높이고 있다. 이곳 광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에게 배운 교훈을 안고 모든 강, 소대, 작업반별로 중산돌격의 열풍을 새겨쳐 일으키고있다.

광산의 일군들이 강, 막장들이 나가 대공의 심정에 불타는 단천지구광업총국과 선진생산공공체를 집중적으로 벌려 모든 일터가 광부들의 혁명적, 투쟁적 열기로 끓어오르며 뛰어들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역할을 가지는 뜻깊은 올해의 결의문을 생산자들 다량광광하고 생산된 광석을 지체없이 리막할 운반하기 위한 이곳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돈산마그네사르프 로동계급은 강소로돌과 분쇄공정을 단 무로 돌리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강장한 생산전투를 벌이며 지난 3월 생산에서 월일 최고기록을 돌파하고 1.4분기 최

대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는 속에 1960년 8월달에 이르러서는 2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였으며 4 958개의 원리마 작업반, 원리마작업이 태어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만리마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만리마시대는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열렬한 결의와 투쟁의 열기와 같은 전진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파인 무엇이 이런 놀라운 기적적성공과를 이룩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층처럼 간직하고 당중앙과 실장의 명령을 같이하며 나가는 영웅적 집결성-김정일로동계급의 백옥같은 총정과 적대세력들의 횡포무도한 제재책동속에서도 자기의 힘만을 믿고 일떠서는 자력자강의 정신만이 안아온 고귀한 결심이다.

◇ 만리마시대는 만리마시수, 만리마시수가 갈아나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새겨쳐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분을 힘있게 표시하여라 합니다.》

주제 45(1963)년 12월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공적혁신운동인 원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이 운동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이어서수평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맡아안은 강철지장의 전진총돌격원들은 《하나는 전진을 위하여, 전세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원리마작업운동의 불바람을 추어넣었으며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원리마작업운동의 열풍을 일으켰을 호소하였다. 은 나

## 계획보다 5만여의 세멘트 증산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말다에서 검사관들의 투쟁기공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원들은 힘있게 지령지시사항을 생산자들에게 전수하면서 생산혁신의 열풍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면서 새 기공, 새 기준을 편이여 창조하여 당에서 준 세멘트생산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안에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전투조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높이 세운 1.4분기계획을 한 주일이상 일당겨 완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계급이 중산투쟁의 앞장에 섰다. 연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이룬은 1.3, 2.2호성으로와 분쇄살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매일 과제를 1.1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조합원조직장, 원료직장과 보수직장, 주강직장, 봉무직장의 로동자들이 검사관들의 투쟁기공으로 많은 과제를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1.3, 2.2호성계획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중무는 단

리마를 맺는가?》 라는 시대의 물음에 새 기록, 새 기공을 창조하여 생산으로 화합하며 상원의 미더운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기세로써 만리마속도로 전진총돌격에 힘있게 뛰어들고 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혼이 뜨겁게 어려있는 만포방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만리마속도로 전진총돌격에 힘있게 뛰어들고 있다. 전진총돌격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중순에 1.4분기계획을 넘쳐 수행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

##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만포방사공장에서

동자들이 태양절을 자랑한 로력적성과 맺어갈 들은 열렬히 애를 기울이고 있다.

년인민경제계획을 4월 1일까지 104%로 일당겨 완수하는 자랑한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신시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새해전투 첫시작부터 일떠마디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새겨쳐 지펴올려왔다.

만포방사공장의 지도원은 일군들은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최선적책치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원료보장과 살비관리, 기술관리 등 힘을 넣으면서 로동자들의 우량공급사업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일떠마디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새겨쳐 라오르게 하고있다.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

쳐가며 가지치는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주기 위한 열풍을 힘있게 벌려 생산정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소모 1, 2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기계공들은 살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각법의 요구에 더우면서 세밀의 필요조건을 힘을 넣어 잘하는 실용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다. 작업반들의 오랜 기능공들은 새 세대 로동자들의 기술가능을 높여주기 위해 애를 노력하고있다.

작업반원, 기계장비관리원, 따라매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혁신자녀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최최성, 필정동무들을 비롯한 로동자들은 살비에 정통하고 기대를 농동자와 같이 애보반려하면서 여러기대만아모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매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작업반장 박순동무를 비롯한 일민전선생산을 맡은 작업반원들은 신일로동자들의 기술가능을 높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미승희, 조성금, 오은성, 김은동무들을 비롯한 세세대 로동자들은 애국적혁신성과 끈진 일민생을 발휘하여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진명 특필

만리마속도로 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부령합금광공장에서-







#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 선군의 총대우에 백승이 있다

어느덧 85년세월이 흘렀다. 태두의 수렴속에서 주체적인 혁명위업의 완성을 선포한 혁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상상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멀리로 왔다는 생각, 그보다 더 가슴지는것은 오직 끝바로만 잡어왔고 그 길에서 언제나 승려해왔다는 무한한 긍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입니다. 우리 혁명의 자랑찬 영로에는 선군이라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인제인가 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평한바 있다. 《영로의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작은 나라인 조선이 세계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모험담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놀고보면 선군조선은 확고히 세계정치의 중심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세계정치의 중심국, 그것은 결코 지형학적으로 의하여 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의 지형학적위치는 변함없이 그 지위에서는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식민지악독국으로부터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통방의 핵강국으로!

한세기전 나라가 쫓겨갈때 각축전야망으로 무쌍히 짓밟혀서 그것을 숙명처럼 감수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 오늘날의 세계의 한 부분에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고있다. 지형학적수명령이 아니라 지형학적수명령을 당당의 주장하며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담대하였고 조선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졌다.

자연적인 변화도,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닌 이 경이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새겨주는 철의 철리는 무엇인가.

선군의 총대우에 백승이 있다! 얼마전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도의 수렴속에 울린 서정소리가 수소탄의 폭발으로 온 세상을 들끓게하셨다. 장강 85성상의 군권신력사가 응축되어있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요인에 대한 신원한 철리가 맥박치는 그 뜻깊은 말씀을 새겨볼수록 우리의 추억은 저멀리 역사의 첫 기슭으로 돌연한다.

무엇에는 무엇으로 맞서야 한다는 투철한 혁명정신을 지니시고 어머니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드러진 원수를 우리 공화국을 무장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핵탄이 구도에 달하였던 지난날에 90년대에 자주적군위업이 되느냐, 도어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신 우리 장군님. 국방강화를 위한 총대우에 수로강화를 위한 인민들이 고생물 겪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자나 가슴이 아프고도, 먼 후날 우리가 잘살게 될 때에는 그들이 모

든것을 비해할것이라고 하시던 그의 심중을 우리 오늘 다시 금 눈물겹게 새겨본다.

군대야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총대우를 신조로 삼으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시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고 험한 전진길을 취입없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와 있어 우리 조국은 남들 같은 열대반도 더 주지않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끄떡없이 군권을 강화하고 백두산봉기창을 더 굳게 다지며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사회주의강국의 금과 보석을 향해 힘있게 내달릴수 있었다.

철어는 길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의 혁사의 시점에 맞을 내린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그것은 우리의 핵무력강화와 《제도전복》을 노리는 미제의 악랄한 행동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앞당겨나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 결정을 가로의 표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에 따라 선군조선의 군권은 비할바없이 강해져왔다. 만만찮은 대외적 특기할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은 《천하제일대》 정책을 떠들던 원수들의 머리를 내린 무서운 천수였다. 온 세계가 주가마아왔다.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핵야

판을 통째로 들부렸다.》, 《성동격사의 수소탄시험이 한미의 최고경제대타세를 써는 울바자로 만들어놓았다.》, 《북은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핵대국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어찌 그뿐인가.

위대한 수명령의 탄생 105회를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의 집일성평양에 펼쳐진 열병식의 장구한 군권신력을 새겨놓은 장군님께서는 천만민을 이끌고 이 가슴우렁한 대승리를 앞오시며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명령을 대한 헌정을 그 마음, 선군조선은 총대우의 핵강국으로 우뚝 떠올려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다.

그때, 회색의 천수명령들을 전주에 보낼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될수 있고 선군의 총대우를 높이 추켜드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모든 시련을 헤쳐며 선군의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가슴우렁한 대승리를 앞오시며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명령을 대한 헌정을 그 마음, 선군조선은 총대우의 핵강국으로 우뚝 떠올려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다.

그때, 회색의 천수명령들을 전주에 보낼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될수 있고 선군의 총대우를 높이 추켜드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모든 시련을 헤쳐며 선군의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가슴우렁한 대승리를 앞오시며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명령을 대한 헌정을 그 마음, 선군조선은 총대우의 핵강국으로 우뚝 떠올려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다.

그때, 회색의 천수명령들을 전주에 보낼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될수 있고 선군의 총대우를 높이 추켜드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판을 통째로 들부렸다.》, 《성동격사의 수소탄시험이 한미의 최고경제대타세를 써는 울바자로 만들어놓았다.》, 《북은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핵대국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어찌 그뿐인가.

위대한 수명령의 탄생 105회를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의 집일성평양에 펼쳐진 열병식의 장구한 군권신력을 새겨놓은 장군님께서는 천만민을 이끌고 이 가슴우렁한 대승리를 앞오시며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명령을 대한 헌정을 그 마음, 선군조선은 총대우의 핵강국으로 우뚝 떠올려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다.

그때, 회색의 천수명령들을 전주에 보낼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될수 있고 선군의 총대우를 높이 추켜드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모든 시련을 헤쳐며 선군의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가슴우렁한 대승리를 앞오시며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명령을 대한 헌정을 그 마음, 선군조선은 총대우의 핵강국으로 우뚝 떠올려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다.

그때, 회색의 천수명령들을 전주에 보낼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될수 있고 선군의 총대우를 높이 추켜드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모든 시련을 헤쳐며 선군의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가슴우렁한 대승리를 앞오시며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명령을 대한 헌정을 그 마음, 선군조선은 총대우의 핵강국으로 우뚝 떠올려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다.

그때, 회색의 천수명령들을 전주에 보낼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될수 있고 선군의 총대우를 높이 추켜드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

## 온 사회에 차넘치는 총대우의 승리가 있다

지난 2월말 어느날 연안군을 15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시봉동부락 비록한 여러명의 전쟁로병들은 마냥 뜨거워진 마음을 감할수 없었다. 그 누구에게 생활의 문제를 내비친적이 없는데 군안의 일꾼들이 생활의 장이 넘치는 물자를 안고 찾아온것이였다.

《눈을 감고 돌리시라... 했지만 아직 잊었습니다.

총대우, 군사총대의 기쁨을 확실히 하기 위한 사업은 제 1차 전담초급당위원장대회 이후 더욱 고조되고있다. 전담초급당위원장대회 이후 전담초급당위원장대회의 대외이후 진행된 가정방문을 놓고 말할수 있다. 초급당위원장 권한일동무는 대외방문은 불어오자마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사적인 결연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작전을 짜

고드는것과 함께 풍광의 영예군인들을 위한 일꾼들의 가정방문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초급당위원장대회는 분담받은 일꾼들이 사전교례를 잘한바 기초하여 깊은 정과 사랑을 안겨주는 결연을 절도부하였다. 초급당위원장은 자제과 로동자 송년일동무의 가정방문을 통해, 영예군인과의 가족들이 보다 친화적인 생활을 누리실수 있도록 여정TV를

고드는것과 함께 풍광의 영예군인들을 위한 일꾼들의 가정방문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초급당위원장대회는 분담받은 일꾼들이 사전교례를 잘한바 기초하여 깊은 정과 사랑을 안겨주는 결연을 절도부하였다. 초급당위원장은 자제과 로동자 송년일동무의 가정방문을 통해, 영예군인과의 가족들이 보다 친화적인 생활을 누리실수 있도록 여정TV를

지난 지난해에도 헌신하며 대중의 가슴마다에 전진한 초급당위원장들을 깊이 생각해 준 군안의 전쟁로병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을 아끼리.

전담초급당위원장대회의 고결한 바인 온 군에 대한 합일이 백승처럼 하기 위해 군당위원회 일꾼들은 이렇듯 송년 로동자의 길을 걸고있는것이였다.

가지고 그의 정을 찾아간 초급당위원장은 전진하여 혁명의 뜻을 더 활짝 피워나가라고 고무하였다.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영예군인들의 집에 가서도 기쁨의 웃음꽃, 행복의 웃음꽃이 등시에 피어났다.

의의깊은 가정방문은 제 1차 전담초급당위원장대회의 이후 온 풍광에 총대우, 군사총대의 기쁨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한 좋은 계기로 되었다.

고드는것과 함께 풍광의 영예군인들을 위한 일꾼들의 가정방문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초급당위원장대회는 분담받은 일꾼들이 사전교례를 잘한바 기초하여 깊은 정과 사랑을 안겨주는 결연을 절도부하였다. 초급당위원장은 자제과 로동자 송년일동무의 가정방문을 통해, 영예군인과의 가족들이 보다 친화적인 생활을 누리실수 있도록 여정TV를

## 조국보위초소와 탄전은 한걸음

문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시기 위한 유물들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초소에 선 자식들앞에 부끄럼이 없게, 땀맛있게!

이것은 인민군대후방가족이 라면 누구나 알고 시는 강렬한 지명이다.

문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의 이런 심리에 맞게 그들의 사업에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연제에서 전차장막에서 불어왔던 초급당위원은 고대시간이 되었는에도 박장을 떠나지 않는 글자공을 만나 이야기하는 날이 있었다. 경애하시어 자주 오르고 한평생에기서판에도 오르지 않는 혁신자였다.

《고대시간이 지났는데 왜 피곤하지 않소?》

《어릴적 고대시간 말이란게 시 편지가 왔는데 글씨 우물수가 되어 영예시절을 찍었다는 게 아니겠지요. 아물아물 부끄럼이 없게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이 새로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대시간이 아니라 신적이 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경부초급당위원을 만나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며 초급당위원은 말하였다. 초소에 선 자식들앞에 땀맛있게 일하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일꾼들이 후방가족들의 사업을 잘하여 선관선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잘 이끌어주시. ... 물론 이전에도 초급당위원은 후방가족들의 사업에 힘을 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 측면에서 빈틈이 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초소에 오르는 감시편지복과 소개선 전사업에 더 큰 힘을 불었다. 아

태양조직원한테 맡겨놓았기 아니라 탄광인민 모임원에게 빠짐없이 부탁하고 내세워주었다.

얼마전에도 초급당위원회는 글자공 박종덕동무의 아들이 탄광이 끝났는데 보내는 감사 편지를 비롯하여 초소에서 온 어머니들의 편지들을 선봉원들과 당초급당위원의 모임에서 복고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후방가족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아태 태양조직원들이 후방가족들이 속한 탄광 종업원들을 모이놓고 편지복보를 하고 교양사업에 의의있게 하도록 변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소의 생활들이 수어받은 표창장이 고창하여 올 때에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업은 인민군대후방가족들도 하여금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영예와 긍지감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그들앞에 땀맛있게 일하라는 드로운 자식을 안고서 탄광선에 더욱 분발하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후방가족들이 탄전을 믿음직하게 지켜

##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남시축산기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모자.

발해진 전무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초급당위원장 리명택동무는 송년일동무 비롯한 일꾼들과 그들을 나누었다. 송년일에 그들은 지난 기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보다 혁신적으로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런 준비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군부사무실에 합류하였던 혁명적군인정신들을 선발하여 이이거도록 제대군인들에게 대한 봉쇄방담을 실시하게 하였다. 한편 이렇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이들을 대담하게 밀고 내세워 결사투쟁의 본분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민중은 곧 신심대로 이어졌다. 선행공장을 맡은 주봉작업반의 제대군인정신들은 견실하게 붓고 로보수정부를 견실하게 해체하고 어려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면 매일 수평생산 140%로 넘쳐 수행하였다. 기적장조의 불바람은 제대군인들, 가공작업반, 조립작업반의 제대군인들이, 조립작업반에서도 편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

에서 만든 축산기계를 보아 주시고 못내 만족하시면서 공장 일꾼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그들의 그 영광, 그 믿음에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받들어나가는 선군정신에 언제나 일관되게 같은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 공장종업원들의 결의대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이때에도 제대군인들을 일차에 내세워준것 역시 초급당위원회가 잘한 점이다.

총정의 200인민반이 시작된 초급당위원회는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더 진지하게 펴고요 공장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더욱 세차게 내세워져 하였다. 이나날 공장은 200인민반무휴를 실현할당겨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좋은 경험을 살려 올해에도 초급당위원회는 제대군인들을 전진하는 대외의 선봉에 내세워 공장을 새로운 위용창조에도 힘있게 불어넣으려고있다.

이처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탄위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게 하면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리라 믿는다.

본사기자 장철범

## 대중운동의 불길높이 총돌격전을 힘있게 추동

각지 당조직들이 3대혁명불은기정령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려 만리마속도상조를 위한 전진총돌격전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3대혁명불은기정령운동은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진력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전진추진력을 앞당기기 위한 강위력한 무기입니다.》

주체사상강화선전관리소 당조직에서는 2중3대혁명불은기정령을 위한 결의부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운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당조직에서는 열심조직사업을 비롯한 대중교양사업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진총돌격전에서 사업과 백두산건설위업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널리 해설전파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주체사상강화의 불길높이 대중교양사업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진총돌격전에서 사업과 백두산건설위업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널리 해설전파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주체사상강화의 불길높이 대중교양사업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진총돌격전에서 사업과 백두산건설위업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널리 해설전파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 성능높은 풍력발전기들이 생산된다

평성자동화기구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속력과 조속, 생동성과 리듬에너지를 위한 전력생산에 늘이더 자연에너지기인 리듬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로력적성품으로 10KW 풍력발전기를 개발제작하여 당중앙위원회 특별감사를 받아 인은 평성자동화기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올해에 들어 풍력발전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최근 이 공장에서 만드는 각이한 능력의 풍력발전기는 생산 인자가 적게 되고 전고달로어나라 대단히 경량화되어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3000W 풍력발전기 하나만 조건에서 원한히 가동할수 있다. 이 발전기 한대로는 살림집 2세대의 조영면 이나리 텔레비전 시청을 비롯하여 문화생활에 필요한 동력을 보장할수 있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개발이용함에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발발하고 올해에 들어 이 사업을 총이 크게 전개하고있다. 도에서는 풍력발전기들이 풍

한 지시들에 각이한 능력의 풍력발전기들을 실리여 맞게 설치하여 비평안단위들과 생산기초사업의 조영과 업무활성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당위원회와 평성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풍력발전기생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평성자동화기구공장에서 100KW이하의 풍력발전기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단계별계획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도와 시의 책임자들은 공장에 자주 내려가 생산자재공급을 불리우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힘있게 벌이는데 함께 보다 훌륭한 생산 및 로동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베푸는 끝없는 공적성과 자력갱생, 간고부투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맞받아 나가며 생산직업의 빛을 새 세계 지져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명진

## 실속있게 진행되는 로작화습

이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로작들의 제기와 내용을 연구학습하여 기초하여 풀리는 조진들이 나가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적극 해설해주고 의심없는 사상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작업반에 내려간 리명진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부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들》을 깊이 빛내

학습을 통하여 이국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군혁명영도를 총적하게 받아들여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으며 당원영웅공적정령주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동당위원회 최명순





# 끝없는 걱정과 환희, 불라는 보답의 맹세로 설레이는 통남산지구

## 새 집들이 기쁨에 넘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만나 보고

단 1년 사이에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서며 명명거리에도 하나의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하늘을 찌를 듯 아이하게 솟아오른 70층, 55층 초고층 아파트를 비롯하여 10개 호동의 1700여채의 아파트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인거졌다. 주택형의 혁신발전, 세계적인 직업들을 키워가는 통남산의 직업적인 혁명기들이 최상의 문명이 융축된 리상거리로 그 누구보다 먼저 행복의 보급사리를 펼쳤다.

누부시계 전편된 통남산지구가 끝없는 걱정과 환희로 불꽃과 같다. 수백세대의 공평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눈물바다를 펼쳐놓았단것이 불과 몇 년 전 일던데 오늘날은 웅장화려한 여러동의 교사들과 기숙사들이 우뚝 솟아 일떠선데 이어 천 수백세대의 멋쟁이살림집들이 도사리 치러졌으니 그 크나큰 걱정과 환희를 그 무엇에 비길수 있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신심과 활력에 넘쳐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수록 주체혁명외적추진력의 날은 더욱더 앞당겨질것임이다.》**

지구상에는 역사나 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적나라 하는 대학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일컫는 그 대학들이 이렇듯 크나큰 혁명적의 살림집문제에 완전무결하게 해결된 계가 언제 있었단가.

과연 어느 나라에서 이처럼 최상의 문명을 창조할수 있는 살림집들을 대대교원, 연구사들에게 넘겨주었는지 있었단가.

하기에 우리는 위대한 세세대, 격동의 만리마시대에 사회주의 문명의 상상봉에 우뚝 올라선 통남산에서 세계를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베풀어준 대국의 재일을 가슴버치게 그려보며 이 글을 적는다.

이것이아닐로 뛰어난 수명님들의 뜻을 정리 받들어 교육종사, 인재중시의 위대한 세세대를 펼쳐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경이적인 사면입니다. <...>

그렇다. 수도의 중심부에 현대 문명의 본보기로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 천수백세대를 이따자 본문의 필립으로 계산한다면 그 값은 천문학적액수에 달할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손꼽을 만한 현대 학문이라 해도 교원, 연구사들에게 그처럼 훌륭한 집을 한꺼번에 무상으로 준다는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인류사에 그 류를 찾아볼수 없는 이런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되어버려야 되었는가.

얼마전부터 대학의 책임인들은 유다의 사담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당중앙위원회 부이 교원, 연구사들의 살림집 문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데 대한 과업을 맡았었던것이다.

식구수에 비하여 집이 좁을수록은 집이 대학으로부터 지내 면면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얼마인가 등 모든 교육자들에게 대하여 다 알아본다는것은 사실일지 없었다. 그러나 명명거리에 일떠서는 환희하는 새 집들이 마치 살아있는 환희하는 새 집들이 되게 하여 다 알아본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사담을 따르 속도로 전진시켜나갔다.

은정것은 조지를 위해주었다는데 대하여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설계, 시공, 건설수가 되시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마련해주신 단독의 별천지가 바로 다름이던 자기들을 위해 일떠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에 배부러지는 땅의 한양 없는 사랑과 온정은 그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학의 사무원들과 노동자들의 집문제도 최단기간에 풀어줄수 있는 혁명적인 대책까지 세워주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이 그 어느 일류대학도 이기지못해 해결해보지 못한 교직원들의 살림집문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대학으로 될수 있게 하여주었다.

새집들이에 하루 통원되는 자동차는 멋쟁이들이 소비되는 연유량은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었다는것을 비롯하여 통남산의 아름다움에 들떠지는 땅의 사랑에는 정당한 한계가 없었다.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경쟁할수 있는 주인공들을 키워내는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의 교육자들은 이렇게 되어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단독의 별천지에 행복의 보급사리를 가져 되었다. 조선의 통남산이 사회주의문명의 상상봉에 높이도 솟아오르며 되었다.

이 조선 만대에 길이 빛내리라

황혼한 세 세에서 사는것이 누구도 꿈만 같아 며칠을 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대학의 교육자들모두가 미치는 격정의 목소리 또한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는 대학의 관공있는 교수와 녀성교육자, 젊은 세 세대 교육자들의 진정된 목소리에서 통남산에 세차게 불어넣고있는 환희의 열풍, 보답의 맹세를 다시 한번 가슴뜨겁게 알아본다.

황혼한 세 세에 이사짐을 풀면 날 문학과 그 교수 박사 양해서 동무와 그의 가족은 궁핍한 세 세의 주인이 되었다는 꿈 아닌 현실에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웅근 한나절동안 이사짐을 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집인의 여거거기를 쓰디쓴다고 쓰디쓴다고 돌아보고 돌아보는데 건설자들이 몇번씩이나 찾아들어왔다.

수도들은 제대로 나오는가, 지일반반과 하수제, 통풍제에는 별다른 일이 없는가, 전기 스위치는 제대로 동작하는가 등을 알아보고 확인되도 이상이 있다는것이 조원인 중요한 기공자들을 지치고 제때에 되쳐 해주기 위해서였다. 출입문에서 집주인을 기다렸다가 열쇠도 인제해주며 이사짐도 함께 맞출아주고는 이처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생활상면까지 세심하게 돌보아주니 말그대로 몸뚱이를 모를 정도였다.

그런수목 양해서동무의 뇌리에는 건설자들이 들려주던 이야기 가 자꾸만 떠올랐다.

건설이 한창 벌어질 때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지원물자들을 안고 자주 찾아오는것을

으로 유일무이한 대학으로 될수 있게 하여주었다.

새집들이에 하루 통원되는 자동차는 멋쟁이들이 소비되는 연유량은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었다는것을 비롯하여 통남산의 아름다움에 들떠지는 땅의 사랑에는 정당한 한계가 없었다.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경쟁할수 있는 주인공들을 키워내는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의 교육자들은 이렇게 되어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단독의 별천지에 행복의 보급사리를 가져 되었다. 조선의 통남산이 사회주의문명의 상상봉에 높이도 솟아오르며 되었다.

있도록 생활조건을 그분의 갖추어 주는 나라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었는가.

70층 초고층 아파트 15층에 보급사리를 전 수하부 박사 부 교수 주현희동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에 대하여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다.

세계과학인 회원회구 회원으로 로서 학술교류를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를 자주 다니고 있는 그는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교수들과 자주 마주하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하지만 말했었다고 하는 나라의 이름있는 교수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이런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는다는것은 전혀 바랄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들에 비해 보면 우리 대학교수들이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떠날들리우고있는 신성한 존재들이라고 하면서는 자신의 마음속 진심을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날마다 꿈을 꾸는것만 같고 호연에서 사는 기분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라라고 하여 저에게도 이처럼 멋진 살림집을 안겨준 고마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집들이를 하는 날 그는 무에서 오면 시간 떠날을 고향이라고 한다. 고공가구를 비롯하여 모든것이 일식으로 꾸미던 부엌은 녀성들이 세세한 담도해 나갈 훌륭한 연구사들과를 더 많이 이룩하였습다.

사실 교육자인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보지라는것은 시간이었다. 그로 하여 가장살림미치 손이 거창히 서서 조선을 빛내일 크나큰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최단기간내에 반드시 이루신 현실로 펼쳐놓을것으로 가슴 벅대우었다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모두의 드높은 충정의 맹세였다.

하기에 우리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싶어하는 자랑이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문명의 상상봉에 우뚝 올라선 통남산의 아름다움이 있다. 격동의 만리마시대가 펼쳐놓은 만복의 현실, 사회주의리상거리에서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누려가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기에 핵무산대국은 후손들에게 길이 찬연히 빛을 뿌리며 세계 단방에 우뚝 솟아 빛났었다.

글 쓴사기자 함 광희  
사진 쓴사기자 함 광희

이것이아닐로 뛰어난 수명님들의 뜻을 정리 받들어 교육종사, 인재중시의 위대한 세세대를 펼쳐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경이적인 사면입니다. <...>

그렇다. 수도의 중심부에 현대 문명의 본보기로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 천수백세대를 이따자 본문의 필립으로 계산한다면 그 값은 천문학적액수에 달할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손꼽을 만한 현대 학문이라 해도 교원, 연구사들에게 그처럼 훌륭한 집을 한꺼번에 무상으로 준다는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인류사에 그 류를 찾아볼수 없는 이런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되어버려야 되었는가.

얼마전부터 대학의 책임인들은 유다의 사담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당중앙위원회 부이 교원, 연구사들의 살림집 문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데 대한 과업을 맡았었던것이다.

식구수에 비하여 집이 좁을수록은 집이 대학으로부터 지내 면면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얼마인가 등 모든 교육자들에게 대하여 다 알아본다는것은 사실일지 없었다. 그러나 명명거리에 일떠서는 환희하는 새 집들이 마치 살아있는 환희하는 새 집들이 되게 하여 다 알아본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사담을 따르 속도로 전진시켜나갔다.

은정것은 조지를 위해주었다는데 대하여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설계, 시공, 건설수가 되시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마련해주신 단독의 별천지가 바로 다름이던 자기들을 위해 일떠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에 배부러지는 땅의 한양 없는 사랑과 온정은 그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학의 사무원들과 노동자들의 집문제도 최단기간에 풀어줄수 있는 혁명적인 대책까지 세워주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이 그 어느 일류대학도 이기지못해 해결해보지 못한 교직원들의 살림집문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대학으로 될수 있게 하여주었다.

새집들이에 하루 통원되는 자동차는 멋쟁이들이 소비되는 연유량은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었다는것을 비롯하여 통남산의 아름다움에 들떠지는 땅의 사랑에는 정당한 한계가 없었다.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경쟁할수 있는 주인공들을 키워내는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의 교육자들은 이렇게 되어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단독의 별천지에 행복의 보급사리를 가져 되었다. 조선의 통남산이 사회주의문명의 상상봉에 높이도 솟아오르며 되었다.

### 교육자들을 위한 만복의 별천지

지난 14일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은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 학생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바치는 관공있는 로고수들은 물론이고 녀성교육자들과 2, 3, 3, 0대의 교원, 연구사들까지도 땅의 온정인 살림집이 용허가증을 받아안았단것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곡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3일 나그네 싸위리스 에리트 오리사를 방문하신수단 및 기술주지사리사장을 비롯한 외곡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주제의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 무력성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부관장관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인민 무력성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부관장관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 무력성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부관장관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인민 무력성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부관장관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 무력성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부관장관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인민 무력성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부관장관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 무력성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부관장관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곡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3일 나그네 싸위리스 에리트 오리사를 방문하신수단 및 기술주지사리사장을 비롯한 외곡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주제의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 무력성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부관장관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력사유적보존관리사업 적극 추진

개성시에서

민족유산보호회관을 맞으며 개성시에서 력사유적보존관리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시안의 근로자들과 일꾼들의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왕건왕릉과 만월대, 선조고 등 귀중한 력사문화유산들을 비롯하여 30여개 대상에 대한 보수공사로 추진되고있다.

일꾼들은 민족문화유산들을 원상대로 보존관리할데 대한 땅의 뜻을 대공중에서 깊이 새겨주는 한편 원호한 살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등 조직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족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는 기와생산기지를 반복하게 꾸려 놓고 표용비를 비롯한 20여개

대상 력사유적보존관리사업의 지공과 물리력을 옛모습 그대로 복원할수 있게 실명분과와 표지주 등의 보색도 진행하였다.

이것 중점원들은 수십리구간의 개성성과 경표왕릉, 칠룡을 력사유적의 특성에 맞게 보수하는 한편 수주년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풍치를 돋우고있다.

민족유산보존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미래의 기 위해 국가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한 애국정신과 명사유적보수수를 담은 근로자들은 긴장한 전두를 벌려 짧은 기간에 10여

개 대상의 력사유적보존사업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였다.

고려왕릉에서도 1 000여 년의 력사를 가진 민족의 자랑 고려성공관의 명문당과 계성사를 비롯한 유적정리사업이 비바람에 의한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대책을 세우고 부부단정사업도 잘해 나갔다.

개성방직공장, 시무역관리국, 해설협동농장, 송도사범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근로자, 청년학생들과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유산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사업에 열차나 뜨거운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녀맹》호 경비행기 증정식 진행

《녀맹》호 경비행기 증정식

《녀맹》호 경비행기 증정식이 23일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의 태양상이 증정식에 증정되 보여졌었다.

중정식 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수하자!》, 《녀맹》호 경비행기 증정식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렬한 축하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용태동지와 평안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김승우동지, 관내부서 일꾼들, 인민군장병

들이, 녀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정식을 주관한 녀맹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의 탄생 105돐을 뜻깊게 경축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만리마시 수도왕조대전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는 시기에 조선인민군장군 85돐을 맞이하며 《녀맹》호 경비행기 《수리개-2》를 인민군대에 증정하는 보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체적국방공업의 만년기쁨을 마련해주고 정력적인 선군병력으로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주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총집에 참가한 녀맹의 열정을 본 백인회동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하였다.

그의 말 회회가 다리를 잘 쓰지 못하기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힘들것 같다는 것이었다.

백인회동부는 그날 자책이 있다.

어쩔지 교육자로서 자신이 구실을 다하지 못해 회회와 그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늘이 진것처럼 느껴졌었다.

이날 총집은 지원회어린이의 집을 찾았다.

회회의 맹상대를 알아본 백인회동부는 곧 그를 영고 시인인 변영호로 향하였다.

선혈학의 정이 담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의료인들은 헌혈의 치료 위해 모두가 펼쳐 나갔다.

얼마후 의료진단이 거듭되는 도의문에 회회의 치료를 고칠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심을 얻은 백인회동부는 이제 그치지 않고 회회의 병치료를 도울수 있을 것인 약재들을

## 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 무력성에서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부관장관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8일 에리트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따사리아래위국기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말 마동희대사가

## 력사유적보존관리사업 적극 추진

개성시에서

민족유산보호회관을 맞으며 개성시에서 력사유적보존관리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시안의 근로자들과 일꾼들의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왕건왕릉과 만월대, 선조고 등 귀중한 력사문화유산들을 비롯하여 30여개 대상에 대한 보수공사로 추진되고있다.

일꾼들은 민족문화유산들을 원상대로 보존관리할데 대한 땅의 뜻을 대공중에서 깊이 새겨주는 한편 원호한 살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등 조직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족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는 기와생산기지를 반복하게 꾸려 놓고 표용비를 비롯한 20여개

대상 력사유적보존관리사업의 지공과 물리력을 옛모습 그대로 복원할수 있게 실명분과와 표지주 등의 보색도 진행하였다.

이것 중점원들은 수십리구간의 개성성과 경표왕릉, 칠룡을 력사유적의 특성에 맞게 보수하는 한편 수주년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풍치를 돋우고있다.

민족유산보존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미래의 기 위해 국가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한 애국정신과 명사유적보수수를 담은 근로자들은 긴장한 전두를 벌려 짧은 기간에 10여

개 대상의 력사유적보존사업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였다.

고려왕릉에서도 1 000여 년의 력사를 가진 민족의 자랑 고려성공관의 명문당과 계성사를 비롯한 유적정리사업이 비바람에 의한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대책을 세우고 부부단정사업도 잘해 나갔다.

개성방직공장, 시무역관리국, 해설협동농장, 송도사범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근로자, 청년학생들과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유산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사업에 열차나 뜨거운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